



출하장의 캐스퍼.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 ‘노하우+기술력’ 품질·성능 호평... ‘안정 성장’ 가속도

지난해 9월 15일 역사적인 신차 양산에 성공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최고 품질의 기술력과 ‘캐스퍼’의 흥행 돌풍에 힘입어 2022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을 기치로 내세우며 2021년 목표인 1만2,000대 생산을 달성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박광태 대표이사가 초대에 이어 제2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이 같은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 비결을 짚어보고 새해 목표와 계획 등을 조명해본다.

### ◇신차 양산 성공 비결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한 ‘캐스퍼’가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GGM이 신차 양산에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이처럼 성공을 거둔 것은 우선 캐스퍼가 외관 디자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단단하고 예쁘다.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과 품질 측면에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동종 기업보다 임금이 낮은 적정임금에 적정 노동으로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었는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했다. 주주 구성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광주은행 등 금융권과 지역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이고, 회사 성격도 자동차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아 품질 좋은 자동차를 생산해주는 위탁생산 전문기업으로 ‘정말로 상생을 실천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작년 캐스퍼 1만2천대 생산 지역 경제에 훈풍  
올해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 자신  
전기차 등 시장변화 대처 유연한 시스템 유지

즉, 현대의 자동차 관련 노하우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차를 출고하기에 앞서 철저한 검사를 진행한다. 최소 5번에서 7번의 검수 과정을 거친다. 공식적으로는 5번의 검수 과정을 거치지만, 여기에 더해 두 번 더 품질을 점검한다.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출고해야만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경영 방침을 철저히 지킨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또다른 성공 비결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상생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자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서 출발 때부터

하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 상생을 실천하고 최고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주변의 우려를 잠재우고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새해 목표와 계획 지난해 9월 15일 양산을 시작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2월 16일 1만 대 생산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목표인 1만 2천 대를 넘어서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양산을 시작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실시한 사전 예약 결과, 역대 현대의 내연기관차 중 가장 많은 예약 대수를 기록해 캐스퍼의 호조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첫 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직원들이 ‘상생의 일터’ 상징석 앞에서 최고 품질 확보와 노사 상생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를 마무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2년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 자동차 생산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고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방침이다. 지역 인재 채용 역시 본사 1,000여 명 규모를 목표로 하되 생산이나 시장 여건 등을 반영해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GGM은 2021년 말 기준으로 57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연말 채용 공고를 내고 70여 명 내외의 신규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2~3월께 입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GM은 올해를 ‘최고 품질과 노사 상생 정착의 해’로 정하고 최고의 품질 확보와 노사 상생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연 생산 10만대를 넘어 20만 대 이상을 생산해 자동차 위탁생산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전기차 등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유연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고 품질과 상생 정착 관건 GGM은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 품질 확보와 노사 상생이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은 물론 노사 상생을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종 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성과급을 지급하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향하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배당해 전 직원이 주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노사 상생만 잘 이뤄지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또 현재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측 위원 6명으로 이뤄진 노사 상생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주거지원 등 복지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 등에 꾸준히 요구할 방침이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우리 시민의 재정이 투입돼 있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이다. 시민의 자람이자 자존심인 회사이며, 지난 2년 동안 공장을 건설하고 신차 양산에 성공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노사 상생을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반드시 이를 이뤄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 실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공공기관 최초

☑ **SBTi**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가입

☑ **Business Ambition for 1.5 °C** 캠페인 참여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탄소저감을 위해 **우리지역의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날입니다.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